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민선 8기 3주년 소회와 시정 성과를 밝히고 있다.

&lt;광주시 제공&gt;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t;전남도 제공&gt;

## 통합돌봄 확대·AI 생태계 조성

광주시

물부족·민생경제·민주주의 위기 극복

심야어린이병원·AI반도체 산업 박차

광주시는 민선 8기 3년간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AI, 돌봄, 교통, 산업, 복지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달성했다.

주요 성과로는 물 절약 운동, 착한 소비 운동, 광장의 응원봉, 대선 투표율 1위 등으로 인한 물 부족, 경기 위축으로 인한 재정 위기, 내란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까지 3대 위기를 극복한 점이 꼽힌다.

그동안 광주시는 AI 산업 육성을 선도하며 국가 주도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2023년 AI데이터센터를 첨단지구에 개관하고 데이터, 기술, 인력, 실증환경 등 AI 생태계 핵심 인프라를 집약했다.

2026년부터는 2단계 'AX실증밸리 조성사업'에 돌입해 광주를 대표할 '대한민국 대표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견고히 하고 있다.

AI 인프라 외에 자율주행차 산업도 '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탄력을 받고 있다. 전곡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2028년까지 약 714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품 부터 실증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AI 반도체 산업도 주목된다. 에임퓨처, 에이직랜드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17개 팝리스 기업이 잇따라 광주에 둑지를 틀며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IP(설계 자산) 개발과 디자인하우스 영역까지 AI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광주다음 통합돌봄'은 의료돌봄과 공동체돌봄으로 확장되며 복지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고 전국 최초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확대됐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 가족돌보미, 산단근로자 아침밥 제공, 죄증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반값 대중교통 G패스,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등을 타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정책으로 호평받기도 했다.

교통정책도 대전환을 맞고 있다. 광주시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이른바 '대자보 도시' 정책을 추진하며 도시철도 2호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자전거 생활권, 보행자 중심 도로 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복합쇼핑몰 개발이 예정된 광천권역은 실증모델 1호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정책인 '광주형 G-패스'를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창업혁신펀드 조성액이 당초 목표였던 5천억원을 넘어 6천200억원에 도달했고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 3중 경제 한파 속에서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프로젝트'와 '골목경제상황실'을 가동해 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더 현대 광주'가 들어설 전방·일신방적 부지 대규모 복합 개발 프로젝트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사업도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해 광주의 도시경관과 생활 인프라를 대폭 개선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군공항이전특별법과 달빛철도법 통과 노력 등 남부경제권 성장 기반 조성에도 힘써왔다.

강기정 시장은 "매 순간 열정과 헌신을 다해준 공직자들을 비롯해 시민의 지혜와 참여 덕분에 많은 위기를 잘 극복 할 수 있었다"며 "지난 3년의 '위기 극복과 변화'의 내공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 재생에너지·미래 농업 선도

전남도

에너지·첨단산업 육성 성장동력 확보

통합 국립의대 추진·핵심 SOC 확충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동안 전남도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할 단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 농수축산업 혁신으로 전남 미래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에너지산업 성장 기반 구축과 첨단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창업혁신펀드 조성액이 당초 목표였던 5천억원을 넘어 6천200억원에 도달했고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경우 세계 최대 3GW 규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협약, 화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민간 주도 고흥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 AI·바이오·우주 전 분야에 거쳐 신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자체, 산업체와 대응에 총력을 쏟은 결과,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전국 석유화학 산단 중 가장 먼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남형 민생·행복시책을 통해 도민 생활 만족도 향상과 안전망 확보에도 앞장섰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 4천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전대책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전남형 만원주택 착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은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 양 국립대학 통합을 통한 전남 국립 의대 설립 추진을 주도하며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기반

까지 구축했다.

고령화·기후변화로 위기에 놓인 농수축산업 혁신도 눈에 띈다.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타당성 확보, 국내 첫 노지 스마트농업단지인 '나주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디지털 선도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소득·정주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을 선도했다.

2023년 전국 (장애인) 체전, 2024년 전국소년 (장애학생) 체전,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등 전국 단위 종합 체육대회를 3년 연속 성공 개최했다.

특히 균형발전과 전남 대도약에 필수적인 도로·철도·공항 등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난 3년간 3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확보했다. 또 강진·완도 고속도로 예타 통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총 20건 3조3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각종 지표에서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전남 예산은 13조800억원으로 2018년(7조5천704억 원) 대비 73% 상승했으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고 예산 9조원을 달성했다.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9위, 호당 소득은 8위로 올라서며 전남 경제가 중위권으로 도약했다.

이 밖에도 순천대, 목포대의 교육부 글로벌대학 본지정에 이어, 올해 동신대 연합, 목포해양대 연합이 예비 지정됐으며 지난 3월엔 광주·전북과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초광역 협력시대의 주춧돌을 놓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AI 육성으로 빛나는 미래를 준비해온 전남의 노력이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다시 없을 시대적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며 "전남의 핵심 과제들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눈부신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 알고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